

# 외동아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Parent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도미향(Mi Hyang Do)<sup>1)</sup>

윤지영(Ji-Young Youn)<sup>2)</sup>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rearing attitudes which are perceived by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and their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 subjects were 426 4th and 6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and Kyonggi-do.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computer program. Two-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Within group variables that predicte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were parental achievemental, loving and autonomous attitude, and school-age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was most predicted by parental achievemental attitude.

**Key Words** : 외동아(only children), 형제아(sibling children), 부모양육태도(parental rearing attitude), 사회정서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 I. 서론

전통적인 가정형태가 변화되고 남녀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면서 가정 내에서만 활동하던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원하게 되었고, 많은 취업 여성들은 자녀를 적게 갖게 되면서 점차 가정에서 외동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70년에는 우리나라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4.5명에서

1980년에는 반으로 줄어 2.83명이 되었고, 2002년에는 출산율이 1.3명으로 낮아져서 30년 동안 자녀수가 약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이렇게 한 자녀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외동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

<sup>1)</sup>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sup>2)</sup> 국립상주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i-Young Youn, Dong-Il Highvil Apartment, 201-102, Onnam-ri, Guseong-eup, Yongin-si, Gyeonggi-do 449-915, Korea E-mail : powerlife@dreamwiz.com

이 많았다. Azmitia와 Hersser(1993)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순위 형제는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학습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형제유무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외동이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과잉 보호적 양육태도와 불안의 요소가 있어서 아동의 성격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김재은, 1984; 정승길, 1996).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여성취업과 높은 아동 양육비 등으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생각들이 크게 바뀌어지고 있다. Boney는 “형제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외동이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6 재인용). 그래서 외동이와 형제아 사이에 특별하게 부모양육태도가 다르지 않아 아동의 성격과 사회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숙경, 1989; 박현주, 1992).

지금까지 외동이의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외동이와 형제아를 비교해서 알아보고 있고, 외동이의 성격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아동의 사회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외동이와 형제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외동이와 형제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남기, 정복남, 1977; 김재은, 1984; 김제한, 1984; 김용래, 2000; 김정희, 2003)이 있는 반면에, 형제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박경숙, 1985; 박현주, 1992)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아동의 인격형성에 밀접

히 관련되어 있다(Paterson, 1983; 김성미, 2000 재인용). 한종혜(1980)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일 때, 자녀의 사회성, 사려성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동이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송성옥, 1998).

또한 부모는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Deluies(1987)는 아버지 양육실제, 태도, 아버지의 역할 참여와 만족을 평가한 결과 성별에 따른 아동양육실제에 있어서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이라고 하였다(송성옥, 1997 재인용). 반면에 Maccoby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더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Buss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의 두 배나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보고하였다(김기런, 1991 재인용). 이와 같이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부모양육태도의 차이와 함께 외동이의 ‘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박현주, 1992; 문혜정, 1995; 김정희, 2003).

그리고 외동이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서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제한, 1986; 김정아, 1990; 송나리, 1993)와 여전히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김득주, 1996; 김병태, 1997; 정유자, 1999). 한편,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와 함께 외동이의 ‘성’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많은데, 외동이의 성에 따른 사회성 발달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김숙경, 1989; 서희정, 1995), 큰 차

이는 아니지만 남아에 비해 여아인 경우의 사회성 발달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제한, 1986; 양동두, 1993; 조성호, 1998).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떠한 지적, 정의적, 행위적 학습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성격, 가치관, 태도, 동기, 능력, 행동양식 등이 결정된다(이광희, 1982). 즉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의 특성은 부모 및 양육자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키웠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은수, 1985). 부모는 형제아와는 달리 외동이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의 환경으로부터 과보호를 하기 쉬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자라는 책임감이 없으며 자기 본위이고 의존적이며 사회성이 결핍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소희 외, 2002). 외동이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김진남(1987)은 외동이 어머니가 두 자녀 이상의 어머니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과보호나 자녀 중심적 태도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격에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외동이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도 높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도 커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만 받는 일방적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Mekke & O'brien, 1982).

따라서 연구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아동의 성격형성에 긍정적이든 부정적

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제유무와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더라도 형제유무와 성별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희정, 1995). 따라서 외동이라는 사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면 형제유무뿐만 아니라 성별,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다양하고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각각에 대한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인 여서, 부모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외동이에 대한 연구들은 형제유무,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성별에 대한 각각의 중요성만 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는 형제유무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형제유무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양육태도, 형제유무, 아동의 성별 중에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부모를 구분하여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고, ‘항상 그렇다’는 4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을 주었고, 평균 점수는 1점에서 4점 범위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 .84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연구대상의 표집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개를 선정하였고, 학령기 아동 중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 및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총 42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외동이 174명(40.8%) 형제아가 252명(59.2%)이고, 성별로는 전체 남학생이 207명(48.8%), 여학생이 217명(51.2%)이다. 외동이와 형제아를 구분하여 성별을 살펴보면, 외동이는 남자가 95명(55.2%), 여자가 77명(44.8%), 형제아는 남자 112명(44.4%), 여자 140명(55.6%)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제작한 것을 토대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로 구성하여, 연구자가 아동의 수준에 맞도록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하였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30문항으로

#### 2) 사회정서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행동과학연구소(1978)가 개발한 것을 이대균(199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사회정서발달 평정 척도를 고학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5개 하위 영역은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이며, 각 하위 영역별로 9문항씩 총 45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를 연구자가 아동에 맞게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하였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제거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항상 그렇다’는 4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을 주었고, 평균점수는 1점에서 4점 범위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 .91이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적 분석은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형제수와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1)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 비교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평균 점수로 볼 때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남자 외동이(M=2.81)가,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남자 형제아(M=2.77)가, 성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여자 외동이(M=2.49)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426)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M	SD	M	SD	M	SD
애정-적대	외동이	2.81 0.34	2.73 0.31	2.77 0.33		
	형제아	2.77 0.32	2.71 0.31	2.74 0.32		
자율-통제	외동이	2.69 0.35	2.75 0.40	2.71 0.37		
	형제아	2.77 0.35	2.73 0.35	2.75 0.35		
성취-비성취	외동이	2.37 0.37	2.49 0.43	2.42 0.40		
	형제아	2.48 0.41	2.44 0.38	2.46 0.39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효과에서는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5), 외동이나 형제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아버지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동아의 경우는 여자(M=2.49)가, 형제아의 경우는 남자(M=2.48)가 아버지에게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

구 분	아버지 양육태도	제공합	평균	제공	F
형제유무	애정-적대	0.09	0.09	0.86	
	자율-통제	0.12	0.12	0.93	
	성취-비성취	0.11	0.11	0.73	
성 별	애정-적대	0.48	0.48	4.73*	
	자율-통제	0.06	0.06	0.05	
	성취-비성취	0.14	0.14	0.87	
형제유무*성별	애정-적대	0.02	0.02	0.17	
	자율-통제	0.26	0.26	1.98	
	성취-비성취	0.67	0.67	4.25*	

\*p<.05 df=1

2)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비교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평균 점수에서 볼 때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남자 외동이(M=2.64)가,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남자 형제아(M=2.70)가, 성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여자 외동이(M=2.41)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3>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426)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M	SD	M	SD	M	SD
애정-적대	외동이	2.64 0.34	2.60 0.33	2.62 0.33		
	형제아	2.61 0.30	2.57 0.30	2.59 0.30		
자율-통제	외동이	2.64 0.38	2.69 0.42	2.66 0.40		
	형제아	2.70 0.39	2.66 0.35	2.68 0.37		
성취-비성취	외동이	2.29 0.39	2.41 0.42	2.34 0.41		
	형제아	2.40 0.37	2.34 0.36	2.37 0.36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효과에서는 두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외동이의 경우는 여자( $M=2.41$ )가, 형제아의 경우는 남자( $M=3.05$ )가 어머니에게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구 분	아버지 양육태도	제공합 평균제공	F	
형제유무	애정-적대	0.08	0.08	0.78
	자율-통제	0.02	0.02	0.11
	성취-비성취	0.04	0.04	0.30
성 별	애정-적대	0.18	0.18	1.85
	자율-통제	0.02	0.02	0.02
	성취-비성취	0.10	0.11	0.74
형제유무*성별	애정-적대	0.07	0.07	0.01
	자율-통제	0.20	0.20	1.35
	성취-비성취	0.77	0.77	5.33*

\* $p<.05$  df=1

## 2.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차이

형제유무와 성별에 다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평균 점수에서 볼 때 내적통제에서 남자 형제아( $M=2.31$ )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남자 형제아( $M=2.02$ )가, 학교안정감에서는 남자 외동이( $M=2.13$ ), 성취동기에서는 남자 형제아( $M=2.20$ )가, 호기심에서는 여자 형제아( $M=2.38$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5>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평균과 표준편차 (N=426)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M	SD	M	SD	M	SD
내적통제	외동이	2.25	0.48	2.06	0.50	2.16	0.50
	형제아	2.31	0.47	2.03	0.45	2.15	0.48
또래와의 상호작용	외동이	1.93	0.48	1.95	0.54	1.94	0.51
	형제아	2.02	0.48	1.97	0.48	2.00	0.48
학교안정감	외동이	2.13	0.55	2.08	0.44	2.11	0.50
	형제아	2.10	0.51	2.09	0.55	2.09	0.53
성취동기	외동이	2.07	0.52	2.17	0.60	2.12	0.55
	형제아	2.20	0.49	2.19	0.57	2.20	0.53
호기심	외동이	2.08	0.61	2.33	0.64	2.20	0.63
	형제아	2.31	0.61	2.38	0.63	2.34	0.62

사회정서발달에서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효과에서 몇 개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는 사회정서발달 요인 중 호기심( $p<.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표 6>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구 분	사회정서발달	제공합 평균제공	F	
형제유무	내적통제	0.04	0.04	0.18
	또래와의 상호작용	0.36	0.36	1.48
	학교안정감	0.03	0.03	0.12
	성취동기	0.51	0.51	1.77
	호기심	1.90	1.90	4.90*
성 별	내적통제	5.60	5.56	24.94*
	또래와의 상호작용	0.03	0.03	0.14
	학교안정감	0.12	0.12	0.46
	성취동기	0.09	0.09	0.31
	호기심	2.39	2.39	6.18*
형제유무*성별	내적통제	0.22	0.22	0.99
	또래와의 상호작용	0.13	0.13	0.55
	학교안정감	0.05	0.05	0.17
	성취동기	0.21	0.21	0.73
	호기심	0.87	0.87	2.25

\* $p<.05$  df=1

타났는데, 형제아(M=2.34)가 외동이(M=2.20)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내적통제(p<.05)와 호기심(p<.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내적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유무와 성별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인 양육태도, 자율적인 양육태도, 성취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별, 형제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의 하위요인인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교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성취적인 양육태도(p<.001)이고, 그 다음이 애정적인 양육태도(p<.01), 자율적인 양육태도(p<.05) 순으로 나타나 부모양육태도 모두가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사회정서발달의 전체 변량 중 19%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형제유무나 아동의 성별은 사회정서발달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내적통제에는 성취적인 양육태도(p<.001)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고, 다음은 성별(p<.001)과 자율적인 양육태도(p<.05)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별에서

<표 7>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구	분	B	SE	Beta	R제곱	F
전 체	성취-비성취	0.29	0.06	0.25***	0.19	31.73***
	애정-적대	0.23	0.08	0.16**		
	자율-통제	0.14	0.06	0.12*		
내적통제	성취-비성취	0.26	0.07	0.20***	0.14	22.81***
	성 별	-0.25	0.04	-0.25***		
	자율-통제	0.17	0.07	0.13*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취-비성취	0.28	0.07	0.21***	0.12	29.89***
	애정-적대	0.33	0.09	0.20***		
학교안정감	성취-비성취	0.44	0.07	0.31***	0.10	43.77***
성취동기	성취-비성취	0.41	0.08	0.27***	0.15	36.66***
	자율-통제	0.26	0.08	0.17**		
호 기 심	성취-비성취	0.28	0.10	0.17**	0.15	14.37***
	애정-적대	0.35	0.12	0.16**		
	성 별	0.15	0.06	0.12**		
	형제유무	0.14	0.06	0.11*		
	자율-통제	0.20	0.09	0.11*		

\*p<.05 \*\*p<.01 \*\*\*p<.001

성별 : 남=0, 여=1 형제유무 : 외동이=0, 형제아=1

는 여아보다 남아가 내적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내적통제의 전체 변량 중 14%를 설명하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성취적인 양육태도( $p < .001$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그 다음이 애정적인 양육태도( $p < .001$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전체 변량 중 12%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정감에서는 성취적인 양육태도( $p < .001$ )만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내적 통제의 전체 변량 중 10%를 설명하였다. 또한 성취동기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성취적인 양육태도( $p < .001$ )이고, 그 다음이 자율적인 양육태도( $p < .01$ )이며, 이들 변인은 사회정서발달의 전체 변량 중 15%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에서는 성취적인 양육태도( $p < .01$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애정적인 양육태도( $p < .01$ ), 성별( $p < .01$ ), 형제유무( $p < .05$ ), 자율적인 양육태도( $p < .05$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형제유무에서는 외동이보다 형제아가 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호기심의 전체 변량 중 15%를 설명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형제아와 외동이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을 형제유무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성별, 형제유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동이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태도를 살

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안복례(1971)의 연구에서 형제유무는 양육태도 차원과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외동이의 경우 여아가 부모의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아의 경우는 남아가 부모의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가 하나뿐인 자녀가 여자일 경우 아들 못지않게 잘 키우려는 것으로, 부모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선자(1999)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동이나 형제아와 상관없이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Maccoby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Buss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의 두 배나 많은 긍정적 반응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김기련, 1991 재인용).

둘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살펴본 결과 사회정서발달에서 호기심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동이와 형제아 사이에 사회정서발달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김정아, 1990; 박성연, 1993; 송나리, 1993). 그러나 호기심에서는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가정에서 형제자매와 자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하게 되어 형제아의 호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사물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부모나 가족의 다른 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형



제아는 외동아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더 많고, 부모가 사회생활을 할 경우 형제자매가 역할을 하여 형제아의 호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호기심이 높게 나타나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지적 역량이나 학업적 역량과 같은 사회적 역량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세하다는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된다(이병림, 1988; 정영숙, 1992; 이필진, 1995).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내적통제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남아아동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동의 발달특성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경로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차 아버지의 역할 수행 및 참여가 자녀의 성격,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및 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송성옥, 1997).

셋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형제유무, 아동의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부모양육태도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제유무와 아동의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아동의 형제유무나 성별보다는 부모양육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허용하고 성취감을 갖도록 자극하는 태도이며, 이런 가정에서 성장된 아동은 사회성, 지도력, 학업

성취에 우수성을 나타낸다는 연구(Baldwin, Watson & Clauser, 1971; 조성호, 1998)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인 호기심의 경우는 부모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형제유무와 성별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형제유무와 성별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에서 설명되었고, 무엇보다 부모의 성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호기심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모의 수용성과 지지성이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Moore & Bulbulian, 1976)와, 높은 권위를 가진 부모보다는 낮은 권위를 가진 부모가 아동과 더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연구결과(Endsley, 1979)에 의해 지지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성취에 가치와 동기를 부여하는 분위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지니게 하여 호기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적절한 수준의 목표에 대해 그 성취를 조장하고, 기대된 수준의 성취가 높게 평가되며, 또 지속적인 성취를 위해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동의 사회정서를 발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이 가진 순수한 동기를 권장하고 강화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제안점과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제안점으로는 본 연구가 서울,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적은 수의 대상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형태, 거주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외동이가 된 배경 등을 더 고려하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기련(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창의성과의 관계.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득주(1996). 확대가족자녀와 핵가족자녀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 김병태(1997).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2000).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성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2000). *교육심리학*. 문음사.
- 김재은(1997). *개정 유아의 발달 심리*. 서울: 창지사.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3). 초등학교 학생의 형제구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성과의 관계. 경인교대 석사학위논문.
- 김제한(1984).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차에 대한 일연구. *서울교대논문집 제17호*.
- 김진남(1987). 외동이와 두자녀 이상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1986). *축복 속에 자녀 하나*.
- 이소희 외(2002).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박현주(1992). 외동이와 형제아의 성격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1995).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나리(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욱(1998).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복례(197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성격형성에 관한 일조사연구. *대구교대 논문집*, 7, 83-109.
- 양동두(1993). 형제수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성격 특성 비교.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희(1980). 아동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적응.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1982). *현대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남기·정복남(1977). 외동이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 논문집 16(2)*, 15-16.
- 이대균(1990).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 대한 소집단활동중심 교수 방법의 적용과 효과.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림(1988).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선자(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창의성과의 관계.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이필진(1995). 취학전 아동의 성과 가정환경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정승길(1996). 한 자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특성.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2).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정유자(1999). 초등학교 외동이의 협동성과 사회성 및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조성호(1998). 외동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선(1999). 아동의 형제유무와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Azmitia, M., & Hesser, J.(1993). Why sibling are important agents of cognitive development : A comparison of sibling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 430-444.
- Endsley, R. C., Hutcherson, M. A., Garner, A. P., & Martin, M. F.(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Child Development*, 50, 331-339.
- Falbo, T., & Polit, D. F.(1986).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Hurlock, S.(1964). *Child Development*, 4th ed. Rev. New York : Mcgraw Hill.
- Moore, S. G., & Bulbulian, K. N.(1976). The Effects of contrasting styles of adult-child interaction on children's curio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71-172.

2004년 2월 29일 투고 : 2004년 4월 19일 채택